

### 1. 정상혈압과 고혈압

혈압은 나이를 먹을수록 서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정상인은 보통 20세를 전후하여 성인혈압에 도달하며 중년 까지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중년이후에는 비교적 급한 상승을 보인다. 어느 연령층이나 남자의 평균혈압은 여자보다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5~10mmHg만큼 더 높다. 60대 이후에는 수축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확장기 혈압은 다소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우 50세를 전후하여 20년기에 들어서면 남자와의 평균혈압 차이가 좁아지며, 외국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혈압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정상혈압이란 혈압으로 인하여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합병증도 일으키지 않는 혈압범위라고 할 수 있다. WHO에서는 140/90mmHg이하를 정상혈압이라 하고, 140~160/90~95mmHg 사이를 경계고혈압이라 하였으며, 160/95mmHg 이상을 고혈압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혈압이라는 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한 것이다. 혈압이 낮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히 혈압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저혈압으로 어지럽다거나 자주 실신·졸도한다는 등의 증상이 없다면 혈압이 낮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혈압은 특수한 경우에만 있으며 극히 드물다.

불안정 고혈압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때는 고혈압이었다가 때로는 정상혈압으로 돌아와서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이런 환자를 여러해 동안 주의관찰하면 그중 다수가 고정된 고혈압환자가 된다고 한다. 경계고혈압 환자도 여러 해 후에는 본격적 고혈압이 되는 수가 많다. 수축기혈압만 기준 이상의 고혈압이고 확장기혈압은 정상인 것을 단독수축기 고혈압이라 하며, 확장기 혈압만 높은 것을 단독확장기 고혈압이라 한다. 이 양자는 어차피 고혈압 범주에 속한다.

본태성고혈압이란 특별히 원인될 만한 것이 없으면서 발생하는 고혈압이라는 뜻이며, 성인병으로 문제되는 고혈압은

## 高血圧치료하지 않고放置하면 각종合併症 발생 과중한 스트레스, 짠음식, 과체중, 과다한脂肪섭취등은 위험要因들

다 본태성고혈압이다. 이차성(secondary)고혈압이란 특수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혈압이며 그 원인이 제거되면 고혈압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차성 고혈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신장의 각종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성(腎性)고혈압이다. 드물게는 혈관질환·부신(副腎)증·약물복용등에 의한 이차성고혈압이 있다.

### 2. 고혈압의 증상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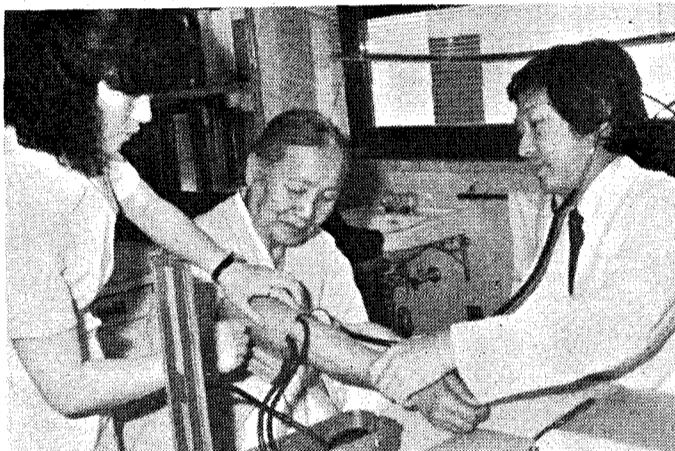
고혈압에 의한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환자는 혈압이 약간 올라도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상당히 높은 혈압에도 불구하고 하등 증상이 없을 때도 있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깨끗하지 않으며 어지럽고 두통이 있다. 후두부 두통이 많으며 목덜미와 어깨가 뻣뻣하다. 동계감(動悸感)이 있고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곤란이 있다. 눈에 충혈이 오기 쉽고 때로는 코피를 흘린다. 손·발이 저리고 차다. 신경이 과민하고 정신집중이 안되며 인내력이 없어진다. 어떤 환자는 합병증이 발생해서 비로소 고혈압을 발견하게 되는 수도 있다. 몹시 어지럽고 구역·구토가 나면서 반신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가 풀리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고혈압의 합병증인 뇌혈관 질환의 조기경보에 해당한다. 취침중에 호흡곤란으로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잠들게 되는 것은 고혈압성 심부전의 증상이다. 이외에도 협심증·신(腎)기능부전·시력감퇴 등의 증상이 올 수 있다.

고혈압의 진단은 어렵지 않으나 반드시 쉬운것만도 아니다. 혈압을 며칠 간격으로 세차례 측정하여 두차례 이상 기준 이상으로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혈압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차례 측정할 때도 두번이상 재서 그 평균을 내는 것이 신중한 방법이다. 한참 누워있거나 앉아서 재는 혈압을 기본 혈압이라 하고, 보통 기본혈압으로 고혈압 여부를 가리지만, 운동중의 혈압변동도 최근에는 중요시되고 있다.

### 3.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면 여러 기관에 합병증이



◆高血圧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脳혈관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및 腎질환등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킨다. 전문의를 찾아 상담한후 치료관리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다(사진은記事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발생한다. 고혈압에 약한 기관은 뇌·심장·대동맥·신장·눈이다. 이를 기관의 합병증은 편의상 높은 혈압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한 합병증과, 고혈압 때문에 촉진된 동맥경화에 의한 합병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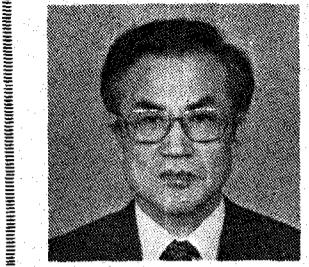
①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뇌출혈과 뇌혈관증으로 나눠서 생각한다. 종합해서 뇌출혈 또는 뇌밀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출혈은 고혈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것으로 뇌혈

관이 높은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열해서 뇌조직내에 혈종(血腫)이 생긴 상태이다. 뇌혈관증은 고혈압의 간접적인 작용으로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까닭에 동맥내벽에 혈액이 응고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뇌출혈이나 뇌혈관증은 공히 반신마비를 가져오며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고혈압성 뇌병증이란 합병증도 있다. 높은 혈압으로 뇌조직에 부종이 생긴 상태이며 위험하나 급히 강압해 주면 괴유될 수 있다.

②박리성 대동맥류: 동맥경화가 되어 저항력이 약해진 대동맥이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여 흉이 갈라진 상태이며 파열되는 경우는 위급하다.

③고혈압성 심장질환: 고혈압 자체에 의한 심장병은 좌심



李學重  
國립医療院  
内科과장

도 있는 위험한 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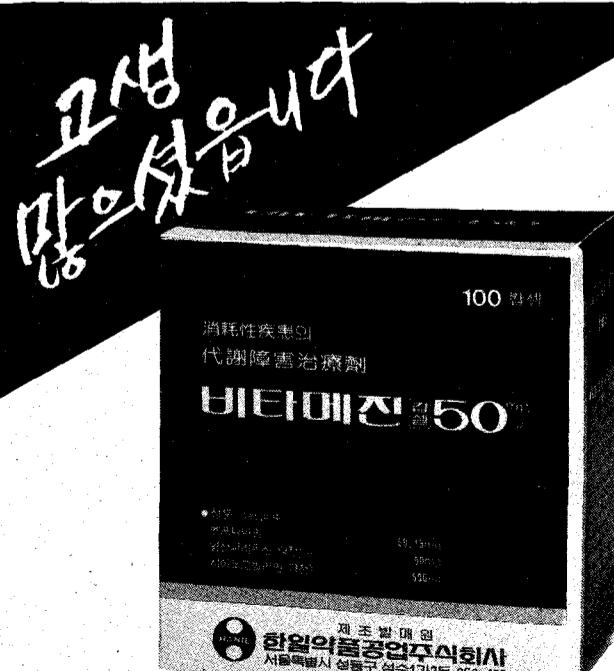
④고혈압성 신질환: 신장이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영향으로 기능이 저하되며 중국에는 요독증 또는 신부전 상태가 된다. 신부전이 되면 이차적으로 고혈압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⑤고혈압성 망막병증: 안구 후방의 시신경(視神經)세포를 영양하는 동맥에 경화증과 출혈이 일어나면 시력이 악화된다.

### 4. 고혈압의 위험요인

본태성고혈압은 뚜렷한 원인을 모르는 병이지만, 고혈압을 성립시키는 여러가지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발병하기 쉽다는 뜻이다. 한·두개의 위험요인만 있을 때는 발병하지 않는 수도 있다. 여러가지 위험요인 중에서 어떤 특정 요인이 꼭 포함되어야 발병한다는 법도 없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가지라도 더 위험요인을 피하고 제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본태성고혈압의 위험요인 중에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도 있다. 불가피한 것도 있고 능히 피할수 있는 것도 있다. 유전과 연령은 피할 수 없는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다. 과중한 스트레스, 과도하게 짠 음식, 과체중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능히 조절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과다한 지방섭취, 운동부족, 끊연, 과도한 음주도 위험요인에 들어간다. 피임제를 사용하는 여성은 위험요인을 넘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뇨병·통풍도 고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이다.



## 당뇨성신경장애·신경통

###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혈액중에 고혈당은 신경조직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당뇨환자 중 약 80%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의 당뇨성신경장애가 발생합니다.

(日本薬理誌: Folia pharmacol. Japan)

- 팔다리에 무감각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 시력이 떨어지며 불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증이 나타난다. • 배뇨가 곤란해진다.

### 당뇨성 신경장애에는 왜 '비타메진'인가?

(日本ビタミン学会(II): 日本ビタミン学会誌, 1982)

비타메진은 신경을 재생시키는 최선의 신경장애 개선제로, 약화된 신경조직 및 근육조직에 활성형 보호제를 공급해 주므로써

- 파괴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 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전화문의처: 한일약품 학술부 서울 464-0861(교, 584)

100-600 서울 종양우체국 사서함 18호

### 신경통 치료법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신경통도 원인은 신경조직의 파괴 및 압박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경조직을 살려내는 비타메진을 복용하게 되면 신경통은 원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임시방편의 약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비타메진으로 신경통을 잊으십시오. 신경계 질환을 원인적으로 개선하는 비타메진은 알콜증독에 의한 신경장애, 근육통, 관절통, 말초신경장애에도 좋습니다.

\* 제품 선택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함량이 높으면서도 흡수가 잘되는 제품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타메진은 신경에 잘 드는 비타민B군을 다양으로 함유하면서도 흡수가 빠르며 축적작용이 없는 당뇨성 신경장애 개선제입니다.

###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에

비타메진 50mg